

# 2017년 우리나라 원유 관련 산업의 수출입 평가와 2018년 전망<sup>1)</sup>

문 병 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bkmun@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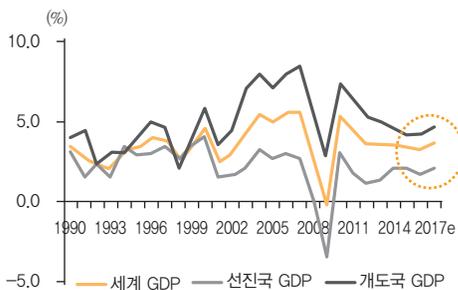
## 1. 서론

최근 세계경제는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선진국과 신흥국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세가 동시에 확대되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7%에서 지난해 2.2%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신흥국도 4.3%에서 4.6%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이후 세계 무역량 신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했으나, 2017년에는 세계무역이 다시 추월하였

다. 세계 상품 무역량 증가율은 2012~2016년 동안 2.3%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4.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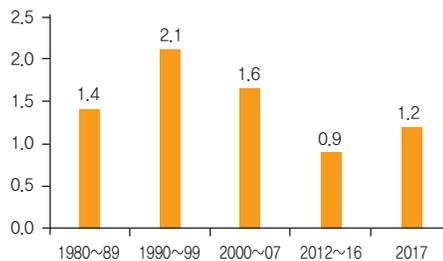
2017년 한국 수출은 무역통계 작성(1956년~) 이래 역대 최단기간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돌파(11.17일)하였다. 2017년 연간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한 5,73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한 4,7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연간 무역수지

[그림 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자료: IMF

[그림 2] 세계무역량 증가율/경제성장률 배수



자료: IMF

1) 본고는 문병기 외, "2017년 수출입 평가 및 2018년 전망," 『Trade Focus』, 45호, 국제무역연구원(2017.11월)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표 1〉 2017년 수출입 실적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구분	2015	2016	2017
수출(증가율)	5,268 (-8.0)	4,954 (-5.9)	5,737 (15.8)
수입(증가율)	4,365(-16.9)	4,062 (-6.9)	4,785 (17.8)
무역수지	903	892	952
무역규모	9,633	9,016	10,522

자료: 한국무역협회

952억 달러 흑자와 함께 무역규모 1조 522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2018년 2월까지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수출단가는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원유관련제품(석유제품, 석유화학, 해양플랜트의 수출 비중 2016년 기준 13.1%)의 가격 상승,

수급개선 및 경쟁력 개선에 의한 반도체·철강제품·디스플레이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8.8% 상승했고, 수출물량은 세계경제 회복과 IT 경기호조 등으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5.3% 증가하면서 수출금액 증가를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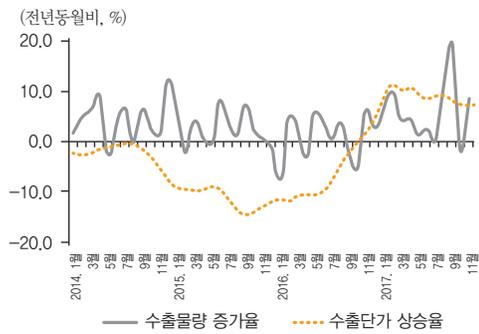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

[그림 3] 월별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그림 4] 수출 단가 및 물량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박,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中·美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의존도가 완화되었다. 2017년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각각 24.8%와 12.0%

로 2016년 대비 0.3%p와 1.4%p 감소했다. 특히 중국은 가공무역 비중(2005년 48.6% → 2017년 28.8%)이 하락하고 중간재 자급률(2005년 34.2% → 2017.1~10월 42.6%)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대미 수출 상위 5개 품목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



〈표 2〉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비중 %)

지역	항목	2016	2017	비중
중국	수출금액	124,433	142,115	24.8
	증가율	(-9.3)	(14.2)	
아세안	수출금액	74,518	95,252	16.6
	증가율	(-0.4)	(27.8)	
베트남	수출금액	32,630	47,749	8.3
	증가율	(17.5)	(46.3)	
미국	수출금액	66,462	68,611	12.0
	증가율	(-4.8)	(3.2)	
EU	수출금액	46,610	54,043	9.4
	증가율	(-3.1)	(15.9)	
중남미	수출금액	25,441	28,099	4.9
	증가율	(-17.1)	(10.4)	
일본	수출금액	24,355	26,827	4.7
	증가율	(-4.8)	(10.2)	
중동	수출금액	26,228	24,397	4.3
	증가율	(-13.8)	(-7.0)	
인도	수출금액	11,596	15,056	2.6
	증가율	(-3.6)	(29.8)	
CIS	수출금액	6,888	9,208	1.6
	증가율	(-2.8)	(33.7)	
선진국	수출금액	208,642	241,955	42.2
	증가율	(-5.2)	(16.0)	
신흥국	수출금액	283,722	328,738	57.3
	증가율	(-6.2)	(15.9)	
전체 수출	수출금액	495,426	573,717	100.0
	증가율	(-5.9)	(15.8)	

자료: 한국무역협회

신기기, 반도체 모두 수출이 정체 또는 부진하였다. 반면 아세안(베트남), 인도, CIS 등에 대한 수출 비중은 상승하면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었다. 아세안, 인도, CIS 등에 대한 수출 호조세로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7



〈표 3〉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비중 %)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반도체	62,647	62,917	62,228	97,942	17.1
	(9.6)	(0.4)	(-1.1)	(57.4)	
일반기계	46,879	45,531	44,157	48,663	8.5
	(5.0)	(-2.9)	(-3.0)	(10.2)	
석유화학	48,214	37,791	36,164	44,655	7.8
	(-0.3)	(21.6)	(-4.3)	(23.5)	
선박	39,886	40,107	34,268	42,369	7.4
	(7.3)	(0.6)	(-14.6)	(23.6)	
자동차	48,400	45,238	40,155	41,703	7.3
	(0.4)	(-6.5)	(-11.2)	(3.9)	
석유제품	50,784	32,002	26,472	34,852	6.1
	(-3.8)	(-37.0)	(-17.3)	(31.7)	
철강제품	35,543	30,201	28,535	34,228	6.0
	(9.4)	(-15.0)	(-5.5)	(20.0)	
디스플레이	32,400	29,716	25,106	27,380	4.8
	(-9.8)	(-8.3)	(-15.5)	(9.1)	
자동차부품	27,977	26,807	25,565	23,139	4.0
	(2.3)	(-4.2)	(-4.6)	(-9.5)	
무선통신기기	29,573	32,587	29,664	22,087	3.8
	(7.2)	(10.2)	(-9.0)	(-25.5)	
섬유류	16,096	14,490	13,807	13,750	2.4
	(0.1)	(-10.0)	(-4.7)	(-0.4)	
컴퓨터	7,714	7,746	8,406	9,212	1.6
	(-0.6)	(0.4)	(8.5)	(9.6)	
가전	15,375	12,831	11,343	8,832	1.5
	(-1.2)	(-16.5)	(-11.6)	(-22.1)	
13대 품목	461,488	417,964	385,870	448,811	78.2
	(2.3)	(-9.4)	(-7.7)	(16.3)	
전체 수출	572,665	526,757	495,426	573,870	100.0
	(2.3)	(-8.0)	(-5.9)	(15.8)	

자료: 한국무역협회



년에 각각 16.6%, 2.6%, 1.6%를 기록하여 2016년과 비교시 1.6%p, 0.3%p, 0.2%p씩 상승하였다. 베트남 수출은 현지 투자 증가로 인해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IT 부품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8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면서 2015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수출 비중 2016년 6.6% → 2017년 8.3%)하였다.

주요 품목의 수출액은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이 증가했다. 세계경기 회복 및 IT 경기호황 등에 따라 반도체(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 45.5%), 디스플레이(2.9%) 등 IT 부품을 수출 증가의 절반 가까이를 견인하였다. 반도체(수출 증가율 57.4%), 석유제품(31.7%), 석유화학(23.5%), 선박(23.6%), 철강제품(20.0%), 일반기계(10.2%) 등 6개 품목은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자동차부품(-9.5%), 무선통신기기(-25.5%), 가전(-22.1%) 등은 부진했다. 반도체는 D램의 가격 상승과 신형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단일품목 최초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MCP·SSD·OLED 등 IT관련 고부가가치 제품의 2017년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47.5%, 45.6%, 34.4%로 증가했으며, 의약품(16.0% 증가), 화장품(18.5%), 생활용품(26.1%) 등 5대 유망소비재의 경우 수출이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다. 무선통신기기(2016년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89.7%)와 가전(냉장고 80.7%, TV 97.3%)은 해외생산 확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내 완성차 판매 부진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석유화학, 석유제품, 조선해양플랜트 등 원유 관련 제품 수출은 국제유가가 2016년 배럴당 41.4달러에서 2017년 53.2달러로 28.4%로 증가함에 따라 2017년 전체 수출 증가의 4분의 3 이상(78.8%)을 기여했다. 2017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원

유 관련 제품의 수출 비중은 21.3%에 달한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석유제품,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등 원유 관련 산업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2017년 수출입을 평가하고 2018년을 전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및 주요 원유관련 산업의 수출입 동향을 평가하고, 3절에서는 2017년 무역·통상환경을 전망하고 4절에서는 이에 기반해 2017년 유가영향(원유 관련) 품목의 수출 전망, 5절에서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2017년 수출입 동향 평가

### 가. 2017년 수출입 동향 평가(전체 산업)

2017년 우리 무역은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2017년 우리 수출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와 최고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였다. 2017년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45%를 기록하면서 최고치(2015년 3.19%)를 경신하였다.

최근 신성장동력 분야와 벤처기업에서 수출성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차, 바이오헬스, OLED, 에너지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8대 신산업의 2017년 수출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8대 신산업의 비중도 2014년 8.3%에서 2017년 12.8%로 꾸준히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지난해 180억 달러를 기록했던 벤처기업 수출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광학렌즈, 의료용기기, 의약품 등 기술력 기반의 제품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최대치(199억 달러)를

〈표 4〉 주요국 수출 순위(2017년)

순위	국가	수출액 (억 달러)	증가율	2016년 순위
1	중국	22,633	7.9	1
2	미국	15,468	6.6	2
3	독일	14,485	8.3	3
4	일본	6,982	8.3	4
5	네덜란드	6,525	14.2	5
6	한국	5,737	15.8	8
7	홍콩	5,503	6.5	6
8	프랑스	5,350	6.7	7
9	이탈리아	5,063	9.7	9
10	영국	4,450	8.6	10

자료: WTO, 한국무역협회

〈표 5〉 주요국 무역 순위(2017년)

순위	국가	무역액 (억 달러)	증가율	2016년 순위
1	중국	41,052	11.4	2
2	미국	39,562	6.9	1
3	독일	26,155	9.3	3
4	일본	13,694	9.3	4
5	네덜란드	12,257	13.9	6
6	프랑스	11,589	7.9	5
7	홍콩	11,402	7.2	7
8	영국	10,891	4.1	8
9	한국	10,522	16.7	9
10	이탈리아	9,585	10.6	10

자료: WTO, 한국무역협회

[그림 5]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자료: WTO

달성하였다.

수출 호조에 따라 생산 및 투자 증가로 2017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를 달성했다.

2017년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 3.1%에 대한 통관기준 수출의 기여율은 64.5%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경제성장률 3.1%



[그림 6] 8대 신산업의 수출액 추이



[그림 7] 2017년 8대 신산업 품목별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6> 8대 신산업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배)

품목명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2014 대비 2017)	증가 배수 (2017/2014)
차세대 반도체	32,392	34,853	36,066	45,829	12.3	1.4
차세대 디스플레이	4,303	5,528	6,861	9,222	28.9	2.1
에너지 신산업	2,595	2,464	2,888	6,560	11.2	1.4
바이오헬스	2,990	3,525	3,987	4,532	14.9	1.5
항공·우주	2,153	2,171	2,299	3,155	13.6	1.5
첨단 신소재	2,729	2,579	2,389	2,753	0.3	1.0
전기자동차	137	340	315	904	87.4	6.6
로봇	514	631	486	662	8.8	1.3

주: 에너지 신산업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 및 증가 배수 계산시 '태양광' 실적은 제외(태양광은 2017년에 HS코드 전편 신설)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중 2.0%p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수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기 시작했지만 수출 호조세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제조업 가동률 제고, 청년 취업애로 해소 등 낙수효과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16년 72.6%에서 2017년 71.9%로 오히려 하락했으며,

2017년 연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1.2만명 감소했다. 또한, 높은 청년 실업률(9.9%) 등 청년 취업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수출과 생산의 회복세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7년 6월부터 전년 동기대비 증가로 전환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7〉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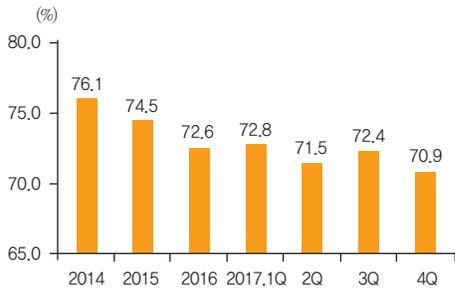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sup>e</sup>	2016년 <sup>e</sup>	2017년 <sup>e</sup>
경제성장률(%)	3.3	2.8	2.8	3.1
총 수출 증가율(%)	2.3	-8.0	-5.9	15.8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35.1	36.8	12.1	64.5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p)	1.2	1.0	0.3	2.0

주: 1)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 100 \* (Δ수출에 의한 실질 부가가치액 / Δ실질GDP)

2)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도(%p) = 100 \* (Δ수출에 의한 실질 부가가치액 / 전년도 실질GDP)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체 계산, 한국은행

[그림 8]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자료: 통계청

〈표 8〉 산업별 취업자 증감

(만명)	2015년	2016년	2017년
제조업	15.6	-0.5	-1.2
건설업	2.7	2.2	11.5
서비스업	25.1	33.9	20.6
- 보건·복지	7.7	8.2	6.2
- 교육	1.1	2.8	4.8
- 공공행정	-2.1	5.7	5.2
- 숙박음식	8.2	9.8	0.3

자료: 고용노동부

### 나. 2017년 원유관련 산업 수출입 동향 평가

2017년 석유화학 수출은 유가 상승(2016년 두바이유 배럴당 41.4달러 → 2017년 53.2달러)에 의한 단가 개선과 신중설 설비 가동에 따른 수출 여력 증가, 역내 수급 개선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한 4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상승에 의한 수출단가가 17.0% 상승하였고, 신중설 설비 가동에 따라 수출물량도 2.8% 늘어났다. 세부 품목별로는 역내 수급이 타이트한 합성수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9% 증가한 2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석유화학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합성원료와 합성고무

는 역내 수급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이 각각 26.4% 38.7% 확대되었다.

조선해양플랜트 수출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424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도 지원된 Drillship, FPSO 등 고부가가치 해양생산설비의 인도로 수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체인지오더(발주처로부터 변경계약)를 받은 고가의 해양플랜트 인도 증가로 인해 2017년 수출은 2016년 말 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석유수요 및 가동률이 전년 수준을 보임에 따라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동시에 글로벌



〈표 9〉 2017년 원유관련 제품의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비중 %)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석유화학	48,214 (-0.3)	37,791 (21.6)	36,164 (-4.3)	44,655 (23.5)	7.8
조선해양플랜트	39,886 (7.3)	40,107 (0.6)	34,268 (-14.6)	42,369 (23.6)	7.4
석유제품	50,784 (-3.8)	32,002 (-37.0)	26,472 (-17.3)	34,852 (31.7)	6.1

자료: 한국무역협회

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OPEC의 감산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금액이 늘어났다. 세부 품목별로는 증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물류량 증가의 영향으로 선박용 연료 수요가 증가하였고, 항공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여객수

요 증가, 윤활유는 자동차 시장 성장 및 친환경·고품질 윤활기유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수출물량이 늘어났다. 반면 나프타는 대만·중국 등 인근국가 석화설비 정기보수 종료의 영향으로, 아스팔트는 중국 자체생산 증가에 따라 한국산 수입 대체 등으로 수출물량이 각각 감소했다. 지

〈표 10〉 원유관련 제품의 수출 물량 및 단가 변동률

(단위: 전년대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석유화학	수출물량	-3.4	6.2	3.1	2.8
	수출단가	4.1	-19.0	-6.1	17.0
석유제품	수출물량	4.4	6.8	1.5	4.8
	수출단가	-8.1	-41.0	-18.6	25.7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역별로는 동남아 지역의 경우 동남아 국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개시장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경유(자동차용)·중유(선박용)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타 제품의 경우 직수출 증가로 중개시장 수출이 감소하였다. 일본은 공정 노후화에 따른 설비폐쇄로 석유제품 수입이 증가하였다. 인도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소비가 증가(특히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윤활(기)유 소비 증가)

하고 있고, 미국은 여객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유 수입 증가로, 호주는 석유설비 노후화에 따른 자체 설비 폐쇄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났다.

### 3. 2018년 무역·통상환경 전망

#### 가. 세계경제

IMF(2018.1월)에 따르면 2018년 세계경제는 2016년부터 나타난 투자, 교역, 산업생산 등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3.7%)보다 0.2%p 상승한 3.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와 높은 정책 불확실성,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과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7년에 이어 2.3%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장 친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소비 및 생산 증가,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경제 회복세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美 세계 개편안과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등 트럼프의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美 성장률을 올리고, 주변 교역국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가 본국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내던 세금을 최대 100%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2017.12월)에 따르면, 미국의 감세정책으로 2018~2025년 동안 미국

의 GDP가 매년 약 0.5~0.7%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18년 2월 12일 경기부양 및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도로와 항만, 공항, 상하수도 등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1.5조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연방 예산으로 투입하고 1.3조 달러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감세, 인프라 투자 확대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을 유발하여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2017년에는 견조한 수출증가, 내수와 고용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빠른 고령화 추세와 더딘 생산성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세계 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로 2017년에는 경기가 호조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추경에 따른 공공투자 증가의 효과 감소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4.7%에서 2018년 4.9%로 0.2%p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은 소비 및 수출

〈표 11〉 미국 세제 개혁의 GDP 영향

(단위: 십억 달러)

보기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37
GDP 전망	19,926	20,661	21,378	22,168	23,037	23,948	24,899	25,889	26,917	27,985	41,419
세제 개혁에 따른 GDP 전망 조정치	20,067	20,784	21,470	22,267	23,157	24,079	25,033	26,023	26,946	27,991	41,440
세제 개혁의 거시경제 효과로 인한 미국 GDP 변동률											
	0.7	0.6	0.4	0.4	0.5	0.5	0.5	0.5	0.1	0.0	0.1

자료: Tax Policy Center (Urban&Brookings 연구소)



을 중심으로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2017년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8년에도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진핑 2기를 맞아 개혁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과잉생산 해소, 기업부채 감축 등 공급측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부동산 경기도 둔화될 전망이다.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지난해 11월의 화폐개혁과 올해 7월의 단일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으로 2017년 성장률 전망은 6%대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중기적으로는 개혁의 성과에 힘입어 7%대 성장률을 회복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2017년에는 수

출경기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났고 2018년에도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정 불안에 따른 경제개혁 지체 및 투자 부진이 향후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통화 가치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소비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2018년 1% 중후반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2018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 증가율은 4.6%로 전망된다. 선진국은 4.3%, 신흥국은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세계경제 성장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16	2017	신규 전망치		기존 전망(2017.10월)과 차이	
			2018	2019	2018	2019
전세계	3.2	3.7	3.9	3.9	0.2	0.2
선진국	1.7	2.3	2.3	2.2	0.3	0.4
미국	1.5	2.3	2.7	2.5	0.4	0.6
유로존	1.8	2.4	2.2	2.0	0.3	0.3
독일	1.9	2.5	2.3	2.0	0.5	0.5
프랑스	1.2	1.8	1.9	1.9	0.1	0.0
이탈리아	0.9	1.6	1.4	1.1	0.3	0.2
스페인	3.3	3.1	2.4	2.1	-0.1	0.1
일본	0.9	1.8	1.2	0.9	0.5	0.1
영국	1.9	1.7	1.5	1.5	0.0	-0.1
신흥 및 개도국	4.4	4.7	4.9	5.0	0.0	0.0
중국	6.7	6.8	6.6	6.4	0.1	0.1
한국	2.8	3.2*	3.0*	3.0	0.0	0.0
인도	7.1	6.7	7.4	7.8	0.0	0.0
러시아	-0.2	1.8	1.7	1.5	0.1	0.0
브라질	-3.5	1.1	1.9	2.1	0.4	0.1
교역량(상품·서비스)	2.5	4.7	4.6	4.4	0.6	0.5
선진국	2.6	4.1	4.3	4.2	0.6	0.7
신흥 및 개도국	2.3	5.9	5.1	4.8	0.4	0.2

주: 우리나라는 WEO 1월 업데이트에는未포함. 2017.11월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 수치 반영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1월)



나. 환율

원화 강세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원화·유로화·위안화는 강세, 미 달러·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美 달러화는 GDP 성장률 호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소비지출, 재고조정, 민간투자 등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12월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및 규제개혁 효과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상승률도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엔화는 구 미 세계 개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일본은행(Bank of Japan; BOJ)의 물가 전망치 하향조정과 여당의 총선승리에 따른 아베노믹스 지속 등에 비추어 미국, 유로지역 등과 달리 통화정책의 양적완화 기초가 이어질 전망이다. 위안화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확대로 위

안화에서 안전통화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 금융시스템 취약성,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對 美 무역흑자에 대한 강경 발언 자제 등으로 위안화 강세 지속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는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2018년 초 이후 채권 매입액 축소(Tapering) 계획을 결정하는 등 통화량 증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18년 원화는 경기 회복세로 달러대비 점진적 강세가 예상된다.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을 반영하여 IMF는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지난 4월에 비해 0.2%p 상향 조정하였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25%→1.50%) 인상했으나,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 따라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자본이탈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표 13〉 원/달러 환율 결정 요인

상승 요인(원화 약세)	하락 요인(원화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GDP 성장률 호조</li> <li>▶ 미국의 금리 인상</li> <li>▶ 美 세계개편안 통과</li> <li>▶ 브렉시트 협상, 북핵 리스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 경상수지 흑자</li> <li>▶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li> <li>▶ 美재무부의 관철대상국 지정</li> <li>▶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에도 자본이탈 제한적</li> </ul>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 또한 美 재무부가 올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의 순매수 개입 규모를 GDP 대비 0.3%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며 중장기적인 원화 절상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원화 강세 요인이 약세 요인보다 커 원/달러 평균 환율이 1,100원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 원자재

2018년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2017년(배럴당 50달러 초반) 대비 소폭 상승한 배럴당 50달러 중반 대가



예상된다. 세계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2년간 경기침체를 겪었던 러시아, 브라질의 경기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원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원유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 반부패 숙청에 따른 정정불안, 미국·이란 핵협상, 쿠르드족 독립 분쟁,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디폴트 우려 등 일부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산유국의 감산 기간 종료에 따른 초과 공급 가능성,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 상승 폭이 제한될 여지도 존재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중심으로 한 공급 감소 우려와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유가 등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표 14〉 유종별 유가 전망

(단위: USD/bbl)

구분	2016	2017	2018(전망)
WTI	43.5	50.9	53.0
Brent	45.1	54.7	56.3
Dubai	41.4	53.2	53.0

자료: Bloomberg(실적), 한국석유공사(전망)

### 라. 통상환경

2018년 중미 5개국과의 FTA 발효로 총 57개국과 16건의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2017년 3월 가서명을 완료한 한·중미 FTA가 서명 및 국내비준을 거쳐 2018년 발효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정체되어 있는 역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및 에콰도르, 이스라엘과의 FTA는 2018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체결된 지 오랜 시일이 지난 일부 기체결 FTA의 추가자유화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아세안, 인도, 칠레 등 FTA를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품의 양허 및 원산지 기준이 제한되어 있는 협정을 중심

〈표 15〉 2018년 FTA 추진 전망

발효(16건, 57개국)		협상중		검토중	
既발효 (15건, 52개국)	신규발효 (1건, 6개국)	신규	개선	협상재개 여건조성	여건검토· 공동연구
칠레, 싱가포르, EFTA(4), ASEAN(10), 인도, EU(28),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SIECA - 과테말라 제외, 5)	한중일, RCEP(16), 에콰도르, 이스라엘	아세안, 인도, 칠레, 한중 FTA 서비스·투자	멕시코, GCC	MERCOSUR, EAEU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으로 추가자유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추가 자유화 협상이 우리 무역업계의 FTA 활용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방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규정 개선을 위한 전략적 협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은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방 유보분야만 적시될 예정으로, 중국 최초로 서비스 부문에서 중화권 외 국가와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사드 갈등으로 경색된 서비스·투자 교류 협력 재개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

한·미 FTA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절차 완료 이후 미국과의 개정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국측은 통상절차법에 의거, 공청회 → 대외경제장관회의 →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8년 초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국내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국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기업의 청원 없이 미국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self-initiation)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對한국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보조금 등으로 특정시장상황이 존재할 경우, 내수가격 대신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등을 활용해 덤핑마진을 산정) 등을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타 케이스에 대한 적용 추이를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셰이프가드, 수입제품의 국가안보 위협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 물량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16〉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동향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	3	2	4	4	7	6	8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ntb, kita, net)

## 4. 2018년 수출입 전망

### 가. 전체 수출입 전망

2018년 수출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6,010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5,080억 달러로 930억 달러 무역흑자가 예상된다.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수요 회복과 IT 경기 호조 등

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8.8% 증가하면서 단일품목 최초로 1,000억 달러 돌파가 기대되며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증가 예상된다. 반면 철강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가전·섬유는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은 민간소비 등 국내경기 회복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



〈표 17〉 2018년 수출입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구분	2016	2017	2018(전망)
수출(증가율)	4,954 (-5.9)	5,737 (15.8)	6,010 (4.7)
수입(증가율)	4,062 (-6.9)	4,784 (17.8)	5,080 (6.3)
무역수지	892	952	930
무역규모	9,016	10,522	11,090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전망

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성이 기대되며, 수출액과 무역액 모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 원유관련 산업 수출 전망**

2018년 석유화학 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460억 달러가 전망된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  
가세가 지속되나, 미국 대규모 신증설에 의한 공급 증가  
로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업황 호조세는 다소 둔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2018~2019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에탄크래커 투자 확대로 공급물량 증가가 예상되며, 폴리  
에틸렌(PE)을 중심으로 업황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  
운송료 등을 고려하면 아시아 지역 유입까지 일정 시간  
소요 예상되나, 글로벌 공급 증가로 국제가격의 하락 요  
인으로 작용한다. 지역별로는 세계적인 경기개선에 힘입  
어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최대 수요처인 중

국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석탄  
설비 가동률 하락 및 환경규제로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석탄화학기반 제품은 저유가로  
인한 경쟁력 하락 및 대규모 투자비, 환경문제로 공급 증  
가에 있어 제약이 존재한다.

조선해양플랜트의 2018년 수출액은 최근 2년간 수주  
량 감소에 따라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  
존 수주규모 및 계약시 납기일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수출 규모는 감소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의 해양플랜트 인도여부에 따라 계획대비 상향 전망  
이 예상되나 공정 지연 및 인도연기 등 부정적 요인도 존  
재한다. 2018년 수출은 지난해 수출액(424억 달러)대비  
52.2% 감소한 203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석유제품의 2018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368억 달러가 예상된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  
가와 국제유가 회복으로 인한 단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  
액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물량은 전년 대비

〈표 18〉 석유화학 2018년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전망)
석유화학	36,164 (-4.3)	44,655 (23.5)	46,000 (3.9)

주: MTI 21 기준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전망



〈표 19〉 석유화학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야	세부내역
수출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에탄크래커 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로 업황 조정이 예상되며, 유가 상승시 하락폭 확대 전망</li> <li>-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제품은 원가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약 1천 만톤 증산 예정 · 중국 등 아시아지역 수출 확대 계획</li> </ul>
제품/기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및 관련 투자 확대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 추진</li> <li>- 2018년 10월 롯데케미칼 NCC 200천톤 증설</li> <li>- 2018년 9월 LG화학 LLDPE 설비 200천톤 증설</li> <li>- 2018년 9월 한화토탈 벤젠 70천톤, PX 171천톤 증설</li> <li>- 2018년 상반기 S-Oil PO/PP 설비 신규가동</li> </ul>
유가 · 원자재 환율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 안정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가격 안정세 유지 전망</li> </ul>

〈표 20〉 미국 ECC 신증설 프로젝트

연도	업체	지역	생산능력(천톤)	가동시기
2017	Oxychem/Mexichem	Texas	545	2017. 1Q
	Dow Chemical	Texas	1,500	2017. 4Q
	ExxonMobil	Texas	1,500	2017. 4Q
	합계		3,545	
2018	Chevron Philips Chemical	Texas	1,500	2018. 1Q
	Formosa Plastics	Texas	1,600	2018. 2H
	Shintech	Louisiana	500	2018. 2H
	Axiall Lotte Chemical	Louisiana	1,000	2018. 4Q
	Sasol North America	Louisiana	1,500	2018. 2H
	합계		6,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표 21〉 조선해양플랜트 2018년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전망)
조선해양플랜트	34,268 (-14.6)	42,369 (23.6)	20,252 (-52.2)

주: MTI 746 기준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전망



〈표 22〉 조선해양플랜트 업계 현장점검 결과

분야	세부내역
수출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세계 발주량은 23.2백만CG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주 저조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일정 변경 등 수출에 부정적 영향</li> <li>• 유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저유가 기조로 지속 시 해양플랜트 부문의 발주 연기 및 취소 등의 발생으로 향후 수출 부진 우려</li> </ul>
제품/기술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까지 LNG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LNG선의 충분한 수주잔량이 존재하므로 추가적인 발주는 많지 않을 전망</li> <li>• 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에 관한 수요 증가 추세이며 친환경선박 등 지속적 성장을 위해 R&amp;D 역량 강화 필요</li> </ul>
유가·원자재 환율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업계는 수주액의 상당부분을 환헤지하고 있어 환율영향이 적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에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li> <li>• 중국 철광석 수요 증가로 인한 철광석 가격의 상승으로 조선용 후판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채산성 악화 전망</li> </ul>
업종별 이슈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발주량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했으나 조선업계 건조능력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 2018년은 전년대비 발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조선업계에 충분한 작업물량 확보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li> <li>• 여신 축소 및 관리에 따른 수출(수주) 경쟁력 악화 우려</li> </ul>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6% 증가, 단가는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등의 정제설비 확충으로 수출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항공유, 윤활유, 아스팔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항공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윤활유는 친환경·고품질 윤활기유 수요가 늘고 있다. 아스팔트의 경우 베트남 등 신흥국의 도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유는 중국산 경유 재고 증가에 따른 역내경

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선박용 경유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유는 선박용 연료의 경유 전환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등유는 난방용 연료로, 날씨에 따라 상이한 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일본과 후주의 석유설비 노후화에 따른 폐쇄로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자급률 제고로 수입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석유제품 2018년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전년대비 %)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전망)
석유제품	26,472 (-17.3)	34,852 (31.7)	36,804 (5.6)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전망

〈표 24〉 정유 업계 현상점검 결과

분야	세부내역
수출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고한 석유 수요 유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석유수요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수출시장은 확대·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li> <li>* 석유수요(IEA, 백만B/D) (2017년) 97.7 (2018_上) 98.5 (2018_下) 99.7</li> <li>- 특히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80% 이상)하는 아시아 지역의 석유 수요가 세계 석유 수요 견인</li> <li>* 아시아 석유수요(IEA, 백만B/D) (2017년) 33.8 (2018년) 34.6</li> </ul> </li> <li>• 주요국의 정제설비 확충에 따라 수출대상국이 수출경쟁국으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제설비 확충에 따라 석유자급률 향상 및 수출경쟁 심화</li> <li>* 정제설비 확충 추이(BP, 2011년/2016년, 백만B/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10.8/14.2 (인도) 3.8/4.6 (사우디) 2.1/2.9 (UAE) 0.7/11.4</li> </ul> </li> <li>- 저유가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정제설비 신증설 속도 감소(백만b/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 1.5 (2015) 0.14 (2016) 0.72 (2017) 0.75 (2018) 0.72</li> </ul> </li> </ul> </li> </ul>
주요 국가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과도한 정제설비 확충 중단 및 소규모 정제설비 가동률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 없는 소규모 정제설비(tea-pot refinery) 가동률 낮게 유지</li> </ul> </li> <li>• 호주/일본: 노후화 설비 폐쇄로 한국산 석유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석유수요는 정체이지만, 호주는 꾸준히 수요 증가</li> <li>* 정제설비 추이: (BP, 2011년/2016년, 백만B/D) : (호주) 7.4/4.5 (일본) 4.3/3.6</li> <li>* 석유수요 추이: (BP, 2011년/2016년, 백만B/D) : (호주) 0.9/1.0 (일본) 4.4/4.0</li> </ul> </li> <li>• 인도: 제2의 중국, 아시아 원유시장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신흥 시장이나, 자급률 또한 높아 전략적 접근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윤활유 수출의 30%를 인도로 판매</li> <li>* 인도 석유수요 추이: (BP, 2011년/2016년, 백만B/D) : 3.5/4.5</li> <li>* 한국의 對인도 윤활유 수출 추이: (석유공사, 2011년/2016년, 백만배럴) : 3.6/4.0</li> </ul> </li> <li>• 동남아 지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된 유로4기준 도입 및 이에 따른 한국산 수송용 연료 수요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환경규제 강화(저유황·고옥탄 프리미엄 가솔린 시장 확대), 인프라 개발 계획 추진 중(물류량 증대·석유수요 증가 기대)</li> <li>- 베트남: 자동차 시장 확대 및 교통 인프라 구축(교통망 연결 마스터플랜 2020) 예정으로, 휘발유 수요 지속 확대 예상/자급률 상승으로 수출 감소 우려</li> </ul> </li> </ul>
유가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국제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석유제품 수출 단가 동반 상승)</li> </ul>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5. 결론 및 시사점

2017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3.2달러로 2016년(41.4달러) 대비 28.5% 상승함에 따라 수출

단가 상승에 힘입어 주요 원유관련 제품인 석유화학, 석유제품, 조선해양플랜트의 2017년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23.5%, 31.7%, 23.6%씩 증가하였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단가가 전체 수출 증가의 70~80%



가량을 차지한 반면 수출물량은 3~5% 증가에 그쳤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석유제품은 중국 등의 정제설비 확충으로 수출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경우 미국 대규모 신증설에 의한 공급 증가로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업황 호조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해양플랜트는 최근 2년간 수주량 감소에 따라 2018년 수출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달러화·엔화 대비 원화 강세 등도 수출 증가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외 무역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수출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원유관련 수출품목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조선업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단계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고강도·내열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등 첨단 신소재와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7년에 첨단 신소재(고부가 합성수지 수출액 15.1% 증가, 고성능 섬유 수출액 16.4%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수출은 각각 15.2%, 23.7% 증가했으며, 2개 분야 신산업 수출의 2017년 취업유발인원은 전년 대비 1만 9,500명이 증가한 6만 1,700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유 등 에너지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단계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에너지·신소재 등 신산업 육성 분야에서 한·중 간 유사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산업내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양국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과 제3국 진출을 위한 공동투자와의

슬협력 등 상호 간 산업 협력 모델(신산업 협력위 운영 등)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중 간 에너지 신산업의 산업내 무역 비중은 2017년에 96.2%에 달하고 있으며, 첨단 신소재 산업내 무역 비중은 2014년 18.0%에서 2017년 18.8%로 상승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신소재(36.0%), 에너지 신산업(23.6%)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인도, 유라시아 등 주요 신흥국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내영 외, “수출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와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8.2
- 국제무역연구원, “2030 한국무역 미래비전 〈선진화된 구조로 세계경제와 조화되는 한국무역〉,” 2016.7
- 문병기 외, “2017년 수출입 평가 및 2018년 전망,” 국제무역연구원, 2017.11
- \_\_\_\_\_, “무역통계 품목분류 체계(MTI)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2017.1.
- \_\_\_\_\_,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의 수출 동향과 경쟁력 분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4.
- 문병기, “8대 신산업 수출의 일자리 창출 및 대중국 수출입 동향 분석,” 국제무역연구원, 2018.2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2018.2
- \_\_\_\_\_, “에너지통계월보,” 2018.2
- 한국석유화학협회, “2017 석유화학편람,” 2017.5

〈해외 문헌〉

Benjamin R. Page, Joseph Rosenberg, James R. Nunns, Jeffrey Rohaly, Daniel Berger, “Macroeconomic Analysis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as Passed by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he Tax Policy Center(Urban Institute & Brookings Institution), 2017,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1

〈웹사이트〉

국제금융센터 <http://www.kcif.or.kr/>  
 대한석유협회 <http://www.petroleum.or.kr/ko/>  
 중소기업부 <http://www.smba.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석유화학협회 <http://www.kpia.or.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http://www.koshipa.or.kr>  
 CEIC <http://www.ceicdata.com/>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ttp://www.eia.gov/>  
 IMF <http://www.imf.org/>  
 ITU <http://www.itu.int/>  
 OECD <http://www.oecd.org/>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UNCTAD <http://unctad.org/>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WTO <http://www.wto.org/>